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NS홈쇼핑 후원

여성 신진학자 학술연구 발표회

시상식 | 사회 정사강(연구이사)
시상 홍지아(회장)

발표회 | 사회 황하성(동국대)

1. 젠더화된 불안정 문화노동 진입과 참여:
방송작가의 진입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김호영(사이먼프레이저대)

토론: 최은경(한신대)

2.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데이터 노동시장의 의제 변화: 데이터
라벨링 노동 담론에 대한 동적 토픽 모델링 분석

발표: 박소영(중앙대)

토론: 최수진(경희대)

3.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 과잉된 그리고 소외된 의제들

발표: 함승경(이화여대)

토론: 이하나(이화여대)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4:30

장소 | 성북 예방재

주최
주관

KWACS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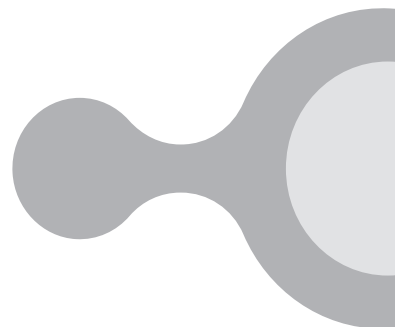
NS NS홈쇼핑





젠더화된 불안정 문화노동 진입과 참여: 방송작가의 진입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김호영(사이먼프레이저대)
토론: 최은경(한신대)



-연구 기획안-

**젠더화된 불안정 문화노동 진입과 참여:
방송작가의 진입 경험을 중심으로**

김호영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미디어 생산과 노동...그리고 젠더

미디어 텍스트분석과 수용 연구 vs 생산 및 노동 연구

생산 및 노동 연구: 한국은 물론 북미 유럽에서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젠더를 중요한 변수로 둔 노동 및 생산 연구 상대적 부족(김수아, 2018; Duffy, 2016; McLaughlin, 1999; Lee, 2011; Riordan, 2002)

“계급과 권력 구조를 다루는 연구에서 여성의 중층적 억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대표적으로 방송 노동에 관한 연구들이 청년 노동 계급이라는 틀 내에서 젠더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로 연구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동 계급의 구성 내에서 젠더 요인이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이 페미니즘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분야의 연구가 젠더를 고려하지 않는 만큼이나 국내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에서 노동이나 계급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김수아, 2018, 28-29쪽)

발표 개요

-연구기획안- 젠더화된 불안정 문화노동 진입과 참여: 방송작가의 진입 경험을 중심으로

- 국내외 연구 동향: 창의 노동 담론과 노동 문제, 문화 노동과 젠더 불평등
- 연구 대상 및 내용: 텔레비전 작가의 젠더와 불안정성
- 연구 관점: 페미니스트 접근 (교차성 및 입장인식론)
- 연구 문제: 작가의 진입경로와 참여
- 연구 방법: 심층 인터뷰

해외 연구 동향

미디어 문화 연구와 노동: 문화 노동, 창의 노동 (creative labour) 담론과 노동 문제

- **창의계급** (Florida, 2002): 자유로운 행위자, 능력과 재능에 따라 경제적 보상 및 사회적 명예 획득
- **불안정 노동자**: 높은 고용 불안정성 (프리랜서화), 초과 노동, 비정기적 노동 시간과 장소, 비공식 채용 (Hesmondhalgh & Baker 2011, McRobbie, 2016; Ursell, 2000)
- **자기 착취적 노동자**: 신자유주의 통치성, 기업가적 주체, self-precarization (Lorey, 2009; McRobbie, 2016; Ursell, 2000)

해외 연구 동향

- 젠더화된 노동자

“A very small group of, mainly older, white men” are predominant in screenwriters’ jobs for film and/or televis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Conor, 2014, p. 101)

- 미디어 산업에서 젠더 불평등

성별 임금 격차, 직무 분리 (horizontal segregation, glass wall), 유리 천장 (vertical segregation, glass ceiling) (Gill, 2002; Bielby, 2009, Banks & Hesmondhalgh & Baker, 2015, Mayer, 2013, Wreyford, 2018)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젠더&노동 연구 경향

- 한국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의 주변화 혹은 여성들의 도전

이수연 (2004), 2000년대 초까지 지상파 정규직 피디나 기자 직종- 남성 80~90%.

김세은-홍남희 (2019): 여성 기자

김보형-백미숙 (2009): (1950년대 이전) 여성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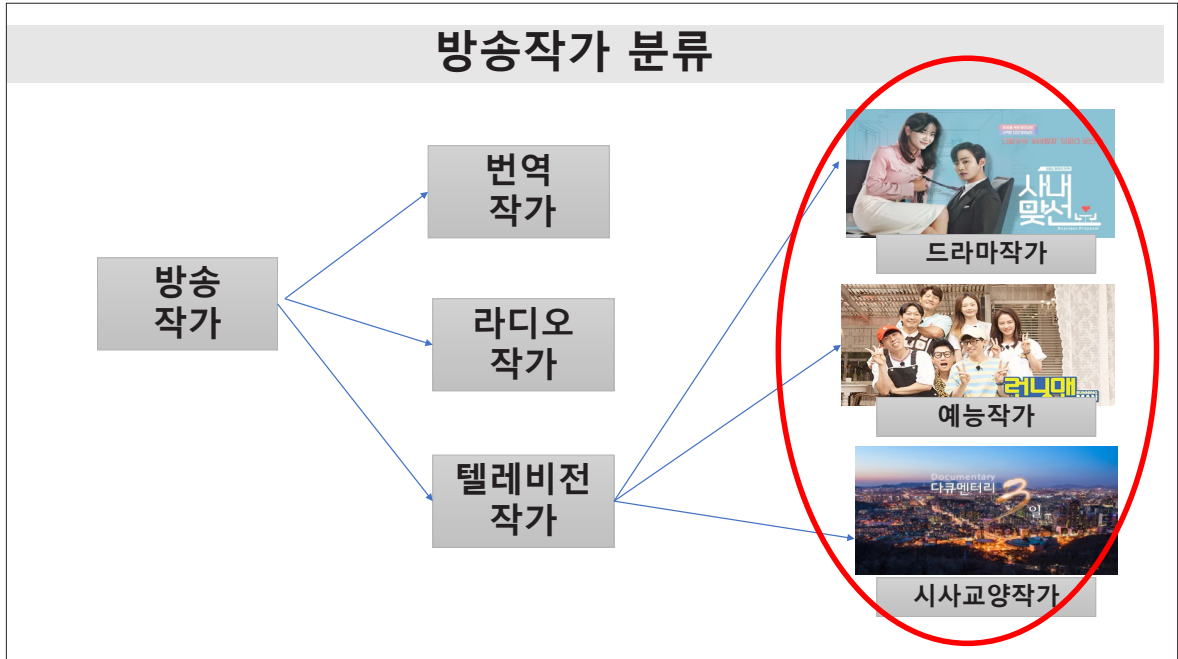
김숙현 (2018a, 2018b): 여성 영화 감독

- 방송 산업에서 작가 (뒤에서 자세히)

김훈순-박동숙(1999): 여성 작가 증가

김현미 (2005), 김순영 (2007): 방송 산업의 젠더화된 노동 시장

김미숙-홍지아 (2016; 2017): 드라마 작가의 생산과 노동



텔레비전 작가와 젠더

표 1. 장르와 젠더에 따른 방송작가 협회 전체 회원 수 (2018년 말 기준)

여성 비율

■ male
■ female

장르	남성	여성	전체	여성 비율
드라마	148	500	648	77.16%
예능	76	727	803	90.54%
시사 교양	33	1326	1359	97.57%
전체	257	2553	2810	90.09%

출처: 방송작가협회 (201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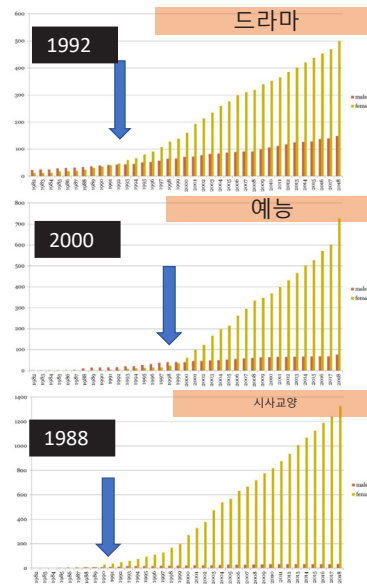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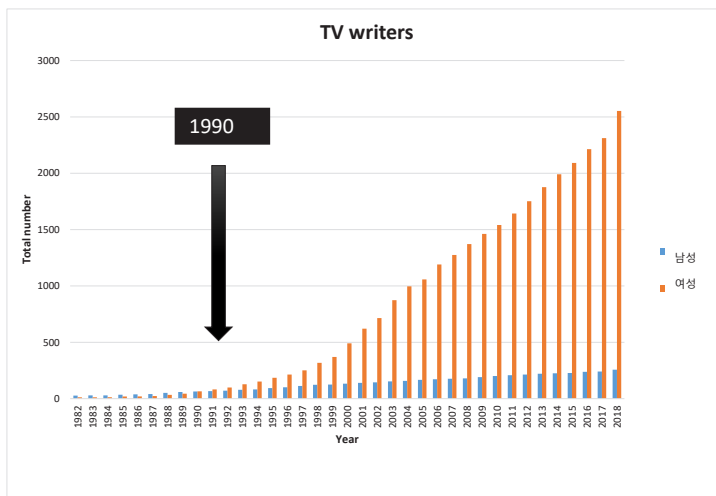
젠더화된 불안정 문화노동

- 작가 = 프리랜서
- 불안정한 노동 조건 : 고용 안정성, 긴 노동시간, 초과근무시간, 무임금 노동, 저평가된 보수
- 1990년대 이미 보도 되기 시작

“MBC의 최종수부국장 은『드라마의 주시청층이 아직 여성 및 청소년층에 집중돼 자연 여성들의 정서묘사에 강한 여성작가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요인을 반영하듯 최근 MBC가 공채한 7명의 방송작가가 전부 여성으로 채워졌고 방송작가협회 교육원에 수강신청해 온 1천4백 여명 중 1천2백명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이는 또 『작가라는 직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남자들의 기피,여성의 취업난』(임동호 작가협회 사무국장)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분석되기도 했다.”(“TV드라마 여성작가 판친다-MBC 8개중 7개 장악”, 최훈 (1994, 11. 16) 중앙일보)

비교: 방송사 피디 & 기자: 1990년대 말까지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이종구·송용한, 2010), IMF 경제 위기 이후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시작(김병선·김건용, 2011)

1990년대 여성 작가 비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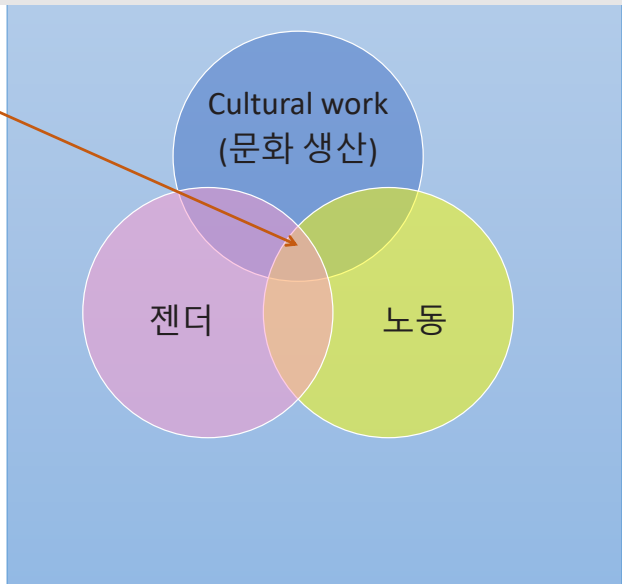
작가의 젠더 및 노동에 대한 논의

- 기존 연구에서도 주변화된 작가노동: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법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방송산업에서 불안정한 노동의 시작 남성이 대부분이 종사했던 피디직에 초점을 맞추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초점 (예, 김병선·김건용, 2011; 이종구·송용한, 2010)
 - >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프리랜서로 불안정하게 일해 온 작가들은?
- 여성 작가 증가 이유: 김훈순·박동숙(1999): 1990년대, 경제 성장에 따른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남녀 고용 평등, 직장에서의 성차별 금지 등과 관련된 법 제정, 여성 교육을 증가
 - > 1990년대까지 피디나 기자 직종은 남성이 80~90%를 차지 (이수연, 2004)
- 방송 산업의 젠더화된 노동 시장에 주목하여 젠더화된 노동시장을 비판 (김현미, 2005; 김순영, 2007)
- 최근 드라마 작가의 생산과 노동 과정 심층연구 (김미숙·홍지아, 2016; 2017)

연구 관점

두 가지 페미니스트 관점

- **교차성 (Intersectionality)** (Bohrer, 2019; Crenshaw, 1991)
 - 여러가지 억압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존재
 - 독특한 착취와 억압의 메커니즘을 찾기 위한 것
 - 각기 다른 그룹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
- **입장 인식론 (Standpoint epistemology)** (Harding, 1991, 2004; Hartsock, 1983; Hesse-Biber et al., 2003)
 - 주변화된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탐색
 - 기존의 지식체계 (예, 백인 중상층 남성애 의한 지식) 재구조화



연구 목적 & 문제

연구 목적:

한국 방송 산업에서 젠더와 노동 이슈의 교차점에 주목해, 1990년대 이후, 텔레비전 작가의 젠더화 및 불안정화의 의미를 방송 작가의 입장과 경험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 문제 :

1. 작가들은 진입당시, 어떻게 그리고 왜 텔레비전 작가일을 하기로 결정했는가?
2. 작가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작가 노동 시장에 진입했는가?
3. 진입당시, 작가들은 자신의 직무 및 노동조건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4. 작가들은 자신의 노동 혹은 문화 생산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규정해 왔는가?

연구 방법

주요 연구방법: 70명의 작가와의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인터뷰 기간 2018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91명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의 부분

표2. 젠더와 장르에 따른 연구참여자

텔레비전 작가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장르			
드라마	16	2	18
예능	16	3	19
시사교양	27	6	33
전체	59	11	70


왜 심층 인터뷰?

1. 기존 문헌 및 연구 부족
2. 페미니스트 인식론

분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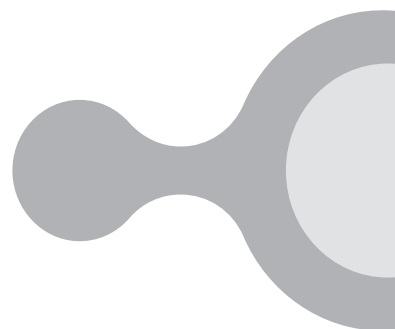
1.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별로 그룹을 나눠서 분석
2. 장르별 차이?
3. 남녀의 차이?

끝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데이터 노동시장의 의제 변화: 데이터 라벨링 노동 담론에 대한 동적 토픽 모델링 분석

발표: 박소영(중앙대)
토론: 최수진(경희대)



데이터 레이블링 노동

데이터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점들

‘현대판 인형 눈알 붙이기’, ‘디지털 노가다’

- 저속련성: 단순 작업, 반복적 작업
- 불안정성: 임금, 고용조건

새로운 일자리 경쟁력

- 포용성: 경력단절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입
- 유연성: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율성

유동하는 노동

-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전 등 급격한 기술성장에 따른 변화
- 상향하는 전문성 기준 vs. 기술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 가능성

연구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연구문제 1.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 과정에서 데이터 노동의 의제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연구문제 2. 정부 및 정부 지원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해 온 데이터 공급 기업, 언론 등 각 사회적 행위자에 따라 데이터 노동 관련 의제 지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거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데이터 라벨링(labeling) 노동 관련 의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 부족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에서 데이터 노동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 부족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 확장의 필요성

기존 문헌 검토

데이터 레이블링 노동의 이론적 의미

- 플랫폼 노동: 노동자 개인이 데이터 라벨러를 모집하는 여러 플랫폼에 등록해 일감을 할당받게 됨 (박선희, 2020)
- 마이크로 노동: 주로 미세 작업(micro-work)을 수행하는 일시적 업무 수행 (김종진, 2021), 일종의 '프레카리아트' (하대청, 2018).
- 인공지능 관련 인간 노동: 훈련(training), 검증(verification), 또는 모방의 토대(imitation)라는 세 가지 영역의 인간 노동의 역할(Tubaro, Casilli, & Coville, 2020) 중 인공지능의 훈련과 관련

cf. 창의성, 유연성, 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노동과의 구분 (김예란, 2015; 박진우, 2011; Hesmondhalgh & Baker, 2013)

cf. 이용자의 플랫폼 활동을 무임의 '데이터 노동'에 비견하는 관점과의 구분 (Dijk, 2009; Terranova, 2000; Fuch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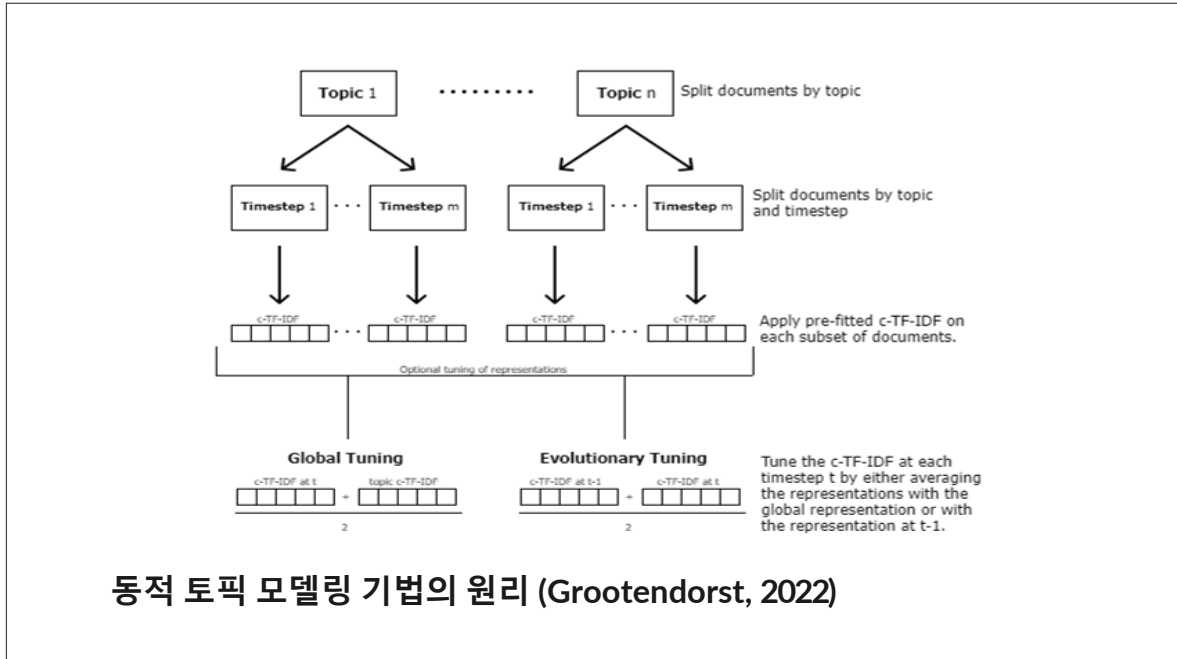
데이터 레이블링 노동을 둘러싼 학문적 논의

- 데이터 레이블링 노동의 과정과 조건 등 제반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김종진, 2021; 장진희, 노성철, & 현종화, 2022)
- 주로 플랫폼 노동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나, 학문적 영역에서 배달 등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에 비교해 주목받지 못함

연구설계

컴퓨터이셔널 사회 과학 방법론적 관점에서 텍스트 기반의 문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 국면에서 데이터 레이블링 노동 관련 의제의 형성 및 변화를 탐구

- 분석대상: 정부에서 발표된 데이터 노동 관련 정책 자료, 정부정책과 연계한 데이터 공급 기업에서 발표 또는 공개한 자료, 관련 언론 보도
 - 분석기간: 2017-2023 (7년). 크라우드웍스(crowdworks) 등 국내 1세대 데이터 공급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2017년을 분석대상 데이터 수집 시작 시점으로 설정
- 분석방법: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토픽 모델링 기법인 동적 토픽 모델(Dynamic Topic Model: DTM) 분석의 적용
 - 자연어 처리에 기반한 텍스트 마이닝과 통계적 분석 방식을 함께 적용해, 방대한 문서의 집합에서 각 문서별 단어의 확률적 계산을 통해 핵심 주제를 탐색하는 기법 (Biel, 2013). 동적 토픽 모델은 연도와 같은 시간 추정에 기반해 데이터를 분할하고 토픽과 토픽비율의 분포를 함께 고려해 시간에 따라 주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줌




연구의 기대효과

- 데이터 라벨링(labeling) 노동 관련 의제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 노동에 대한 거시적, 통시적 관점의 사회적 함의 제시
-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에 의한 데이터 노동의 사회적 구성 과정을 탐구해 데이터 노동(시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도모
- 인공지능의 가속화된 성장 등 기술변화에 따른 데이터 노동시장 내의 격차와 인간노동의 주변화 (marginalization)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실증적 단서의 제공
- 포용성, (불)안정성, 유연성, 창의성, 전문성 등 미디어와 디지털 노동의 제반 속성들을 기반으로 각 의제와 관련된 데이터 노동장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인식을 재구성 및 해석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의 확장에 기여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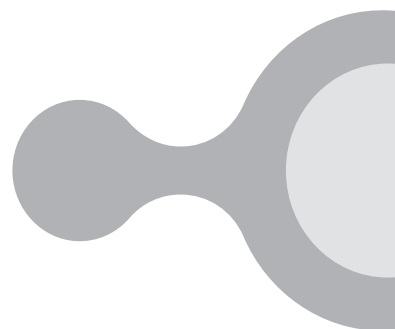
1. 김예란. (2015). 디지털 창의노동: 젊은 세대의 노동 윤리와 주체성에 관한 한 시각. 한국언론정보학보, 71-110.
2. 김중진. (2021).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 I-온라인 마이크로 워크 노동 상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3), 1-15.
3. 박선희. (2020). 플랫폼의 전유와 저항: 배달플랫폼 노동과 AI 노동의 사회적 구성. 언론과 사회, 28(4), 5-53.
4. 박진우. (2011). 유연성, 창의성, 불안정성: 미디어 노동 연구의 새로운 문제 설정. 언론과 사회, 19(4), 41-86.
5. 장진희, 노성철, & 현중화. (2022). 플랫폼노동의 알고리즘 현황과 대응방안-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노동자 통제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1-227.
6. 하대청. (2018). 루프 속의 프리캐리야트: 인공지능 속 인간 노동과 기술정치. 경제와사회, 277-305.
7. Fuchs, C. (2015). Digital labor. The Routledge Companion to Labor and Media, 51.
8. Grootendorst, M. (2022). BERTopic: Neural topic modeling with a class-based TF-IDF procedure. arXiv preprint arXiv:2203.05794.
9. Hesmondhalgh, D., & Baker, S. (2013). Creative labour: Media work in three cultural industries. Routledge.
10. Terranova, T. (2000). Free labor: Producing culture for the digital economy. Social text, 18(2), 33-58.
11. Tubaro, P., Casilli, A. A., & Coville, M. (2020). The trainer, the verifier, the imitator: Three ways in which human platform workers support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 Society, 7(1), 2053951720919776.
12. Van Dijck, J. (2009). Users like you? Theorizing agency in user-generated content. Media, culture & society, 31(1), 41-58.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 과잉된 그리고 소외된 의제들

발표: 함승경(이화여대)
토론: 이하나(이화여대)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 과잉된 그리고 소외된 의제들

함승경

Ewha,

Where Change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1. 문제제기

- 세월호 참사, 코로나 팬데믹,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들
- 책임의 문제와 다양한 집단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
- 재난의 피해, 피해자의 고통 가중

2. 이론적 배경 _ 재난과 정치

- 1) 재난과 정치 (Guggenheim, 2014)
 - 사회의 질서와 연속성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규범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건
 - 재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 배분은 어떻게?
 - 위험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2. 이론적 배경 _ 재난과 정치

- 1) 재난이 만드는 정치
 - (1)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장(site)
 - : 사회적 구조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건
Hoffmann & Oliver-Smith
 - 재난에 대한 정치적 대응,
관련된 주체 및 조직,
재난에 대한 대응 결정
 - (2) 물질적 사건 material event
 - :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2. 이론적 배경 _ 재난과 정치

1) 재난이 만드는 정치

(3) Disaster as cosmopolitics

: 사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가 합법적인 주체이고,
주체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2. 이론적 배경 _ 재난과 정치

2) 정치가 만드는 재난

(1) 비상상황

: 국가는 재난을 기회로 활용해
법률 변경, 전문가의 보고서 작성,
복구 조직의 파견
사람들과 물류의 이동을 통제

2. 이론적 배경 _ 재난과 정치

2) 정치가 만드는 재난

(2) 위험과 예방

: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사회를 재구성

(3) 정치 자체가 생산하는 재난

- 정치 주체의 행동에 관한 것,
재난 전, 중, 후에 대한 그들의
불능한 행동에 대해 논의

2. 이론적 배경 _ 공포관리 이론

1) 공포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 죽음의 공포를 자존감과 세계관으로 방어
(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Arndt, & Schimel, 2004)

- 죽음의 현저성이 높아지면 →공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계관에 의존 →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의견에 호의적

2. 이론적 배경 _ 공포관리 이론

- 1) 공포관리 이론(Terror Mangement Theory)
 - 죽음의 현저성은 규범과 가치에 대한 의존을 높임
(Gailliot, Stillman, Schmeichel, Maner, & Plant, 2008)
 - 내집단 정체성을 강화
(Castano, Yzerbyt, Paladino, & Sacchi, 2002).
 - 불관용
(Greenberg, Simon, Pyszczynski, Solomon, & Chatel, 1992),
 - 갈등 해결을 위한 폭력지지
(Hirschberger & Pyszczynski, 2010)

2. 이론적 배경 _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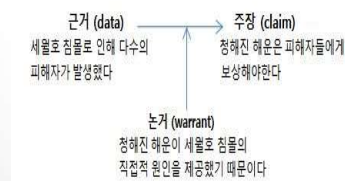
- 1)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김영욱& 함승경,2015)

(1) 참사 담론 : 사고 담론



2. 이론적 배경 _ 선행연구

- 1)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김영욱 & 함승경, 2015)
- (2) 진상규명 담론 : 보상 담론



2. 이론적 배경 _ 선행연구

- 2) 2003년-2020 한국 일간지의 '위안부' 보도 분석
(함승경, 정사강, & 김은영, 2022)
-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의제 비중 차이>

주 제	보수지	진보지	주 제	보수지	진보지
할머니와 수요집회	0.47	0.53	위안부 합의	0.51	0.49
정치	0.52	0.48	소녀상	0.48	0.52
동북아 외교	0.53	0.47	이데올로기	0.44	0.56
국제적 지지	0.49	0.51	시민참여	0.53	0.47
손해배상	0.48	0.52	일본언론의 유경화	0.52	0.48
과거사	0.53	0.47	교과서	0.47	0.53
증언과 연대	0.50	0.50	기록과 기념	0.49	0.51
피해자 지원	0.49	0.51	재일동포와 일본인	0.51	0.49
한일외교전	0.56	0.44	지식인의 부정	0.50	0.50
대중문화와 위안부	0.54	0.46	전쟁과 기억	0.50	0.50
망언	0.53	0.47	식민과 독립	0.49	0.51
한일 외교갈등	0.53	0.47	명예훼손	0.46	0.54
부인과 왜곡	0.49	0.51			

2. 이론적 배경 _ 선행연구

2) 2003년-2020 한국 일간지의 '위안부' 보도 분석
(함승경, 정사강, & 김은영, 2022)

- 명예훼손 :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는
가시화되지 못함
순결한 소녀, 할머니로 대변되는 피해자 다움
- 전쟁과 기억 : 위안부 문제를 무엇으로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부재, 전쟁의 수많은 피해 중 하나로 조망
- 기록과 기념 : 역사적 내용보다는 기념사업 난항에 집중

2. 이론적 배경 _ 연구문제

- (1) 참사 시기와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공론장의 지배적인 의제들은 무엇인가?
- (2) 참사 시기와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대립되었던 의제들은 무엇인가?
- (3) 시기별로 공론장에서 소외된 의제들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1) 연구 대상과 기간

: 2022년 10월 19일 – 2023년 1월 17일까지

5대 언론사 보도 : '이태원' 키워드로

(2) 분석 방법 : LDA 토픽 모델링 분석

- k , α , β

- Marshall(2013).체계적 절차

k 와 α 의 다양한 결합

+ β 의 값을 $1/k$ 로 고정

(Wallach, Mimno, & McCallum, 2009)

3. 연구방법

(2) 분석 방법 : LDA 토픽 모델링 분석

- perplexity

- topic coherenc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